

서울 거주 외국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 다차원적 생활조건과 한국어 능력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among Foreign Residents in Seoul

: Focusing on Multidimensional Living Conditions and
the Moderating Role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범 존 하**
FAN ZUNXIA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연구설계
- IV. 분석결과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 거주 외국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한국어 능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기존 연구가 사회적 결속이나 정책 공정성에 주목했다면, 본 연구는 거주어려움, 차별 경험, 도시 이미지, 지역사회 소속감, 주관적 행복인식 등 서울 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차원적 생활 조건에 초점을 둔다. 특히 한국어 능력을 단순한 의사소통 능력이 아니라 생활정보, 행정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 역량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2023년 서울서베이 외국인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 거주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과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도시 이미지, 주관적 행복인식, 지역사회 소속감은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거주어려움과 차별경험은 부(-)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한국어 능력은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거주어려움, 주관적 행복인식과 지역사회 소속감의 영향 관계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이는 한국어 능력이 외국인의 생활 적응과

* 본 논문은 2025년도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던 논문였습니다.

** 충북대학교 박사과정생

논문 접수일: 2026. 4. 6. 심사기간: 2026. 4. 6. ~ 2026. 5. 26. 게재확정일: 2026. 5. 26.

제도적 자원 접근을 지원하는 핵심 역량임을 시사한다.

□ 주제어: 서울 거주 외국인, 생활만족도, 한국어 능력, 조절효과, 제도적 접근 역량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among foreign residents in Seoul and the moderating role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Unlike previous studies focusing on social cohesion, policy fairness, or general social integration, this study analyzes residential difficulties, discrimination experiences, perceived urban attractiveness, community belonging, and subjective happiness. Korean language proficiency is viewed as an institutional access capacity, not merely as a communication skill.

Using the 2023 Seoul Survey of Foreign Residents, this study analyzed 2,500 foreign residents through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s with interaction terms. The results show that perceived urban attractiveness, subjective happiness, and community belonging positively affect life satisfaction, whereas residential difficulties and discrimination experiences have negative effects. Korean language proficiency has a positive direct effect and moderates the effects of residential difficulties and community belonging on life satisfaction.

□ Keywords: Foreign Residents in Seoul, Life Satisfaction, Korean Language Proficiency, Moderating Effect, Institutional Access Capacity

I. 서론

글로벌 시대에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장기간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진행되는 인적·물적 이동, 결혼이민 증가,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유출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이민의 수요와 공급이 발생하고 있다(윤혜선 2012). 한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과 독특한 문화를 지닌 국가로서 유학, 취직, 생활 정착을 위해 많은 외국인을 끌어들이고 있다.

1960년대 이전까지 한국의 외국인 유입은 제한적이었으나, 산업화와 서구와의 교류 확대를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점차 증가하였다. 이후 1990년대 들어 결혼이민자, 유학생, 전문인력 등으로 유입 유형이 다양화되었으며, 외환위기와 한류 확산을 배경으로 외국인 유입이 더욱 확대되었다. 한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1990년 4만 명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까지 21만 명으로 인구수가 5배 정도 늘어났다. 이런 빠른 증가 추세로 2007년에 100만 명에 달했으며, 9년 만에 다시 200만 명을 돌파했다. 2019년 코로나로 인해 체류 외국인 수가 잠시 감소했지만 2022년에 다시 올랐다. 특히 유학생과 한국계 중국인 동포의 증가세가 제일 두드러졌다.

2023년 12월 통계 월보에 따르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은 2,507,584명으로 전년보다 10.4% 증가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36.2%), 베트남(11.5%), 태국(7.1%)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비전문취업(22.6%), 유학(10.5%), 영주(8.1%), 결혼(7.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법무부, 2023). 그리고, 이런 고소득 국가에 온 외국인들은 대부분 대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현상이 있다. 대도시에서 도시 기능 유지에 수많은 숙련된 전문직 및 관리직 근로자들과 필요한 동시에 저임금 저숙련 근로자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임동진 2021).

서울시는 한국의 수도이자 현대화된 도시로서 많은 국가의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며 2023년 12월 기준으로 거주 외국인 인구가 869,944명(한국 전체 외국인 인구의 38.7%)였고 한국에서 제일 많은 외국인 거주하는 도시이다(통계청, 2023). 이러한 대규모 인구 유입은 단순한 인구 현상이 아니라, 도시 서비스, 사회통합, 정책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를 제공한다. 이에 외국인의 생활만족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도시정책의 적실성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생활만족도가 낮은 외국인은 고립감, 사회적 불신, 이탈 의도를 가질 수 있으며(Berry, 1997; Putnam, 2000),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서울서베이 외국인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 거주 외국인의 삶의 질과 한국어 능력

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연구(한규은, 2025)가 제시된 바 있다. 해당 연구는 지역사회 사회의 사회적 결속과 정책의 공정성 인식이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외국인이 서울 생활에서 직접 경험하는 거주어려움, 차별경험, 도시 이미지, 지역사회 소속감, 주관적 행복 인식 등 다차원적 생활 조건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한국어 능력을 단순한 의사소통 능력이 아니라, 외국인이 생활정보, 행정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접근 역량으로 해석하고, 이러한 역량이 생활·제도적 어려움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거나 지역사회 소속감의 긍정적 효과를 강화하는지를 검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서베이 외국인 조사(2023)’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 생활만족도의 다차원적 영향요인을 검증하고, 생활·제도적 어려움과 한국어 능력의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외국인의 정의

외국인에 대한 정의는 법적·제도적 맥락과 학문적 논의에서 다소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다. 먼저, 법률적 차원에서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항에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1호는 이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법률적 정의는 국적의 보유 여부와 체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외국인의 범위를 구분한다.

한편, 학문적 차원에서 외국인은 단순히 국적이 다른 집단을 넘어, 거주 사회 내에서 제도적·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참여 정도에 따라 규정되는 사회적 집단으로 이해된다(김은미·정현주, 2017). Putnam(2000)은 외국인 및 이주민을 사회적 자본 형성의 관점에서 설명하며, 이들의 관계망과 신뢰수준이 생활만족도와 직결됨을 강조하였다. 또한 Berry(1997)는 문화적응(acculturation) 이론에서 외국인을 상이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적응 과정을 경험하는 집단으로 보았다. 국제기구 또한 유사한 시각을 제시하는데, OECD(2015)는 외국인을 “태

어난 나라가 아닌 곳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 정의하며 이주민 개념과 포괄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종합하면, 외국인은 법적 측면에서는 국적 보유 여부와 체류 상태를 기준으로 규정되며, 학문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관계, 제도적 접근성, 문화적응 과정을 통해 이해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정의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채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사회적 통합과 정책 효과성을 검토하는 핵심 분석 단위로 설정한다.

2. 생활만족도의 개념과 이론적 논의

1) 생활만족도 개념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개인이 자신의 삶 전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주관적 행복인식(Subjective Well-Being, SWB)의 핵심 요소로서, 학문적으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개념이다. Neugarten et al.(1961)은 생활만족도를 노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처음 제시하면서, 이를 삶의 경험에 대한 전반적 태도로 규정하였다. 이후 Diener(1984, 1985)는 생활만족도를 개인의 주관적 행복을 구성하는 중요한 하위 차원으로 설명하며, 인지적 평가(cognitive judgment)와 정서적 반응(affective response)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Campbell et al.(1976)은 생활만족도를 “개인이 설정한 욕구와 가치의 충족 정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정의하며, 삶의 여러 영역에서의 만족도가 종합된 결과로 파악하였다. Andrews and Withey(1976) 또한 생활만족도를 다차원적 개념으로 보고, 직업, 주거, 건강,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등 삶의 구체적 영역에 대한 평가가 종합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생활만족도는 “삶 전반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자 심리적 안녕감을 나타내는 포괄적 지표”로 사용된다(김안나·최승아, 2017). 이정환(2016)의 연구에 따르면, 이주국에서 외국인 이주민의 현지 적응이나 통합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일상생활 만족, 행복감, 사회문화 수용성, 사회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지표가 활용되어 왔으며, 그중에서도 생활만족도는 보다 대표적인 측정 지표로 자리잡아왔다. 따라서 생활만족도는 단순한 개인적 행복의 척도가 아니라, 사회적 자본의 형성, 지역사회 통합, 국가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학문적·정책적 함의를 지닌다(OECD, 2015; Putnam, 2000).

생활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의 삶 전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주관적 행복(Subjective Well-Being, SWB)의 지표로서(Neugarten et al., 1961; Diener, 1985) 단

순한 개인적 차원의 복지지표를 넘어, 사회 전체의 통합 수준과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다(OECD, 2015). 특히 외국인의 생활만족도는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과 지역 사회 적응 수준을 반영하며, 다문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는 중요한 변수로 간주된다(Berry, 1997; Putnam,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생활만족도를 주관적 행복(SWB)의 인지적 평가로 규정하고, 주거·경제·사회적 관계·제도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과의 연계 속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2) 생활만족도의 영향 요인: 요인별 정리와 선행연구

(1) 개인적 요인(Personal Factor)

개인적 요인은 외국인의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로 인구사회학, 학력, 언어 능력, 심리적 자원, 사회적 자본, 체류기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외국인 개인 차원의 특성, 경험, 자원이 그들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개인의 인지적, 심리적,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초점을 둔다. 교육 수준은 외국인 개인적 역량의 중요한 지표로 높은 교육 수준은 더 나은 고용 기회와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줄 수 있다.

현행 연구 중에 주로 한국어 능력(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및 한국어 구사능력으로 외국인의 언어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의사소통 수단인 한국어 능력은 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변수로서 외국인 생활만족도에 대한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김선숙 외 2020; 나중연 2008; 박윤경·이소연 2009; 조운주·최연실 2013; 조혁수·전경태 2009; 전성윤·전희정 2024). 이 외에도 이강욱(2024)의 연구에서 한국어 능력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중국인 유학생 지각하는 차별감, 두려움과 생활만족도 간에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고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어 능력 수준을 초중, 고급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한국어 능력이 높은 경우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분석되었다.

심리적 요인은 외국인의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이민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문화적 충격, 고립감 등은 외국인의 심리적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Berry(2006)의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문화적 충격을 경험한다. Ward et al.(2001)의 연구를 따르면 사회적 지지 부족과 고립감이 외국인의 심리적 안녕과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신원식·정연주(2010)은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생활 적응 능력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주관적 인식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관적 인식은 생활 만족도 및 적응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주관적 행복 인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외국

인 어머니들의 차별 경험, 자아존중감, 부모효능감이 주관적 건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심리적 요인들이 주관적 건강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외국인 여성의 주관적 행복 인식과도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2) 사회적 요인 (Social Factors)

사회적 요인은 개인이 속한 사회 구조 및 관계망과 관련된 외부 환경 요소를 의미하며 주로 사회적 지지, 사회적 배제 경험, 차별 인식, 공동체 소속감, 사회 참여, 대인관계 등은 외국인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관계와 지지가 문화적응 성공 및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Berry 1997). Putnam(2000)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네트워크는 외국인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강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진 외국인일수록 지역사회 소속감이 강해지며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진희 등(2014)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의 중국인 밀집지역을 사례로 하여,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정과 소속감 형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사회 소속감은 외국인의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역 주민과의 상호작용, 문화적 수용성, 제도적 지원 등이 소속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차별 경험은 외국인 생활만족도 연구에서 자주 활용되는 변수로서 Williams et al. (1997)은 차별을 “개인이 인종, 피부색, 민족 등의 이유로 부정적 대우를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Phinney et al.(1998)는 인종적 차별 경험은 외국인의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경험한 외국인은 낮은 생활만족도를 보고하였다. 이 외에 Schmitt et al.(2014)는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구조적 차별과 내면화된 낙인이 심리적 안녕과 생활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다. 김안나·최승아(2017)는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보다 여성이, 학력이 높을수록, 차별경험이 없는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유학생의 차별경험과 유학생 생활만족도간의 관계를 설명하면 중국인 유학생이 음식점이나 공공장소에서 불친절한 서비스를 받거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면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해연 외 2019).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문화가구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결혼이주여성이 사회적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한성·이유신 2013).

(3) 제도적 요인(Institutional Factors)

제도적 요인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제도적 환경과 정책이 삶의 질과 만족도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요인이며 외국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되고,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받으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정책 전반을 의미한다. 주요 구성요소는 이민 정책(영주권 취득, 장기체류 자격), 복지 제도 접근성(건강보험, 실업급여), 공공 서비스 접근성(언어 지원, 다문화센터), 교육제도(공교육 진입 장벽, 한국어 교육), 주거제도(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 보증금 지원),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 제도(차별금지법) 등을 들 수 있다.

외국인은 거주하면서 행정 기관을 통해 민원해결, 교육 기회 획득, 의료기관 이용, 주거환경, 체류자격의 취득과 변경 등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동진(2021)은 논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을 대상으로 정착서비스 수요와 생활만족도를 분석하였다. 공공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의료서비스에, 결혼이민자가 통·번역서비스에 가장 만족하였으며, 유학생은 통·번역서비스에 불만족을 나타냈다. 민숙원 등(2020)은 한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이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진로 선호와 교육 기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유학생들은 교육 기회 확대와 진로 지원이 생활만족도 향상에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도시이미지는 거주자가 도시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개념으로,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제도적 기반, 문화적 자원, 미래 발전 가능성까지 포괄하는 다차원적 속성을 지닌다(Lynch, 1960). 국내 연구에서도 도시이미지와 생활만족도의 밀접한 관계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다. 김선숙 외(2020)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 도시이미지가 생활적응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김흥렬 등(2013)은 외국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국제도시성, 관광도시로서의 매력, 미래지향성”과 같은 도시이미지 요인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도시이미지가 단순한 주관적 인식이 아니라, 도시정책, 행정서비스, 문화적 기반 등 제도적·환경적 요인의 총체적 반영임을 뒷받침한다.

3. 통합 이론적 분석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제도적 요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요인을 규명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대체로 개별 요인 중심의 설명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으며, 서로 다른 요인들이 어떠한 구조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생활만족도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통합적 설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요인들을 하나의 분석틀로 통합하기 위해, 주

관적 웰빙 이론(SWB), 사회생산함수 이론(SPF), 사회적 질 이론(SQT)을 이론적 기반으로 활용한다. 세 이론은 각각 생활만족도의 결과, 형성과정, 그리고 구조적 조건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먼저, 사회적 질 이론은 개인의 삶의 질이 사회적·제도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거주어려움, 차별경험, 도시 이미지는 외국인이 서울 생활에서 경험하는 제도적 환경의 차원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사회생산함수 이론은 개인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삶의 질을 형성한다고 본다. 제도적 환경은 그 자체로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정보, 공공서비스, 사회적 관계,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통해 생활만족도로 전환된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사회 소속감은 외국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지지와 관계망을 확보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사회적 관계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웰빙 이론은 생활만족도를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인지적 평가로 설명한다. 따라서 주관적 행복인식은 외국인이 자신의 건강, 재정상태, 인간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평가하는 개인적 인식의 차원이며, 생활만족도는 이러한 인식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에 따라 본 연구는 제도적 환경이 사회적 관계와 개인적 인식을 통해 생활만족도로 연결된다고 보며, 한국어 능력을 이 과정에서 작동하는 핵심 조절요인으로 설정한다. 한국어 능력은 단순한 의사소통 능력이 아니라, 외국인이 생활정보, 행정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접근 역량이다. 따라서 한국어 능력은 거주어려움, 차별경험, 도시 이미지, 지역사회 소속감, 주관적 행복인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어 능력은 생활정보와 행정서비스 접근, 지역사회 관계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인의 영향 관계에서 보다 뚜렷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어서 본 연구는 외국인의 생활만족도를 “제도적 환경-사회적 관계-개인적 인식”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구조 속에서 설명하고, 한국어 능력이 이러한 관계를 조절하는 통합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졌던 요인들을 하나의 구조적 틀 속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외국인 생활만족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설명력 있는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Ⅲ. 연구설계

1. 연구자료 및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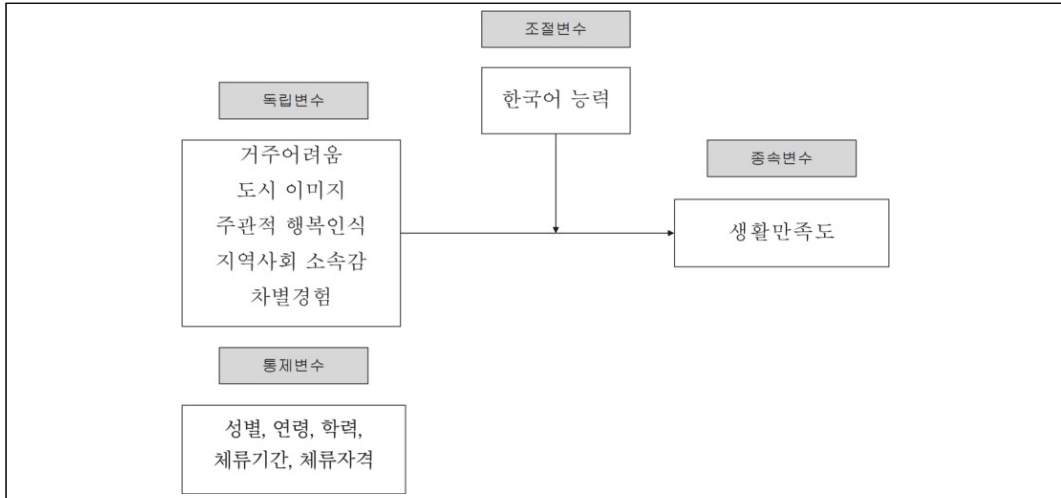
본 연구는 2023년 「도시정책지표조사」 중 ‘서울시 외국인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 거주 외국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동 조사는 만 20세 이상,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매년 8~9월에 실시하는 공식 통계조사로, 외국인의 생활수준 개선 및 정책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조사 방식은 방문면접과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조사 내용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주거 및 생활환경, 경제활동, 사회적 관계 및 통합, 언어 및 문화적응, 생활만족도 및 행복감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연구에서 외국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거주어려움, 지역사회 소속감, 도시 이미지, 주관적 행복인식, 차별경험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이 이러한 요인과 생활만족도 간 관계에서 어떠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생활만족도의 사회인구학적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연령, 성별, 학력, 체류기간, 체류자격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개념적 분석틀을 기반으로 각 변수의 직접효과뿐 아니라, 변수 간 상호작용을 포함한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모형을 제시한다.

〈그림 1〉 연구모형



3. 주요 측정변수

1) 종속변수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주관적인 평가이며 일반적으로 개인의 행복과 웰빙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본 연구는 서울시 외국인 생활만족도가 종속변수로 경제, 복지, 사회, 교육, 도시안전 등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응답은 '매우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5점)까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2) 독립변수

거주 어려움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주거를 구하거나 유지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의미하며 이는 주거비 부담, 주택의 질, 주거 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민원 해결, 교육 기회 취득, 의료 기관 사용, 주거 공간, 체류자격 취득 및 변경 등 5가지 방면으로 조사를 하였다. 응답은 '전혀 어렵지 않음'(1점)부터 '매우 어렵다'(5점)까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도시 이미지는 주민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특정 도시를 인식하고 평가하는 방식과 관련된 개념으로, 이는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과 감정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문항을 국제, 관광 매력, 미래지향 도시 개념을 도입하였다. 응답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부터 ‘매우 동의함’(5점)까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주관적 행복인식은 외국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지를 나타낸다. 문항은 건강과 재정상태, 주변친지/친구와의 관계, 가정과 사회생활 5가지 방면으로 구분하여 척도는 ‘가장 불행한 상태’(0점)부터 ‘가장 행복한 상태’(10점)까지 사용하였다.

지역사회 소속감은 사회적 통합의 중요한 요소로, 외국인이 자신이 지역사회나 집단의 일원이라고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총 4가지 부분이 포함되고 있다. 즉, 알고 지내는 편,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야기 함, 어려움 있으면 서로 도움, 동네 각종 행사, 모임에 참여라는 문항 구분되었다. 대답은 ‘전혀 그렇지 않는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차별경험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인종, 국적, 언어,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한 빈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차별경험은 동네에서, 상점, 음식점, 은행 등에서, 공공기관에서, 집주인/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직장/일터에서 등 5가지 장소에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문항을 설정하였다. 응답은 ‘전혀 차별 받지 않음’(1점)부터 ‘심한 차별 받다’(5점)까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3) 조절변수

한국어 능력은 외국인이 한국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는 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얼마나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사회적 통합과 경제적 기회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한국어 능력은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4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여 ‘매우 미숙’(1점)부터 ‘매우 잘함’(5점)까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4) 통제변수

연구에서 성별은 남성 1로 하고 여성은 2로 하였다. 연령은 ①20대 이하 ②30대 ③40대 ④50대이상으로 구분하였다. 학력은 외국인이 받은 교육 수준을 의미하며 ①받지 않았음(미취학 포함), ②초등학교, ③중학교, ④고등학교, ⑤전문대학, ⑥대학교, ⑦석사과정, ⑧박사과정 등으로 구분하였다. 체류기간은 ①12개월 미만, ②24개월 미만, ③36개월 미만, ④48개월 미만, ⑤48개월 이상 라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체류자격은 ①방문취업(H2), ②전문인력(E1~E7), ③유학 및 언어연수(D2, D4), ④방문동반(F1~F3), ⑤재외동포(F4), ⑥영주(F5), ⑦결혼이민자(F6), ⑧기타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 1〉 설문 문항 내용

구분	변수	문항	
종속변수	생활만족도	경제환경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복지환경	
		사회환경	
		교육환경	
		도시안전	
조절변수	한국어능력	말하기	1. 매우 미숙 2. 미숙 3. 보통 4. 잘함 5. 매우 잘함
		읽기	
		쓰기	
		듣기	
독립변수	거주어려움	공공 행정 기관을 통한 민원 해결	1. 전혀 어렵지 않다 2. 별로 어렵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어렵다 5. 매우 어렵다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기회 획득	
		의료 기관 사용	
		주택 등 거주 공간	
		체류자격 취득 및 변경	
	도시 이미지	국제도시	1. 전혀 동의하지 않음 2. 별로동의하지않음 3. 보통 4. 약간동의함 5. 매우동의함
		관광 도시로서의 매력 있음	
		미래지향적 도시	
	주관 행복인식	건강상태	0. 가장 불행한 상태 5. 보통 10. 가장 행복한 상태
		재정상태	
		주위 친지/친구와의 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지역사회 소속감	알고 지내는 편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어렵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어렵다 5. 매우 그렇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야기 함	
		어려움 있으면 서로 도움	
		동네 각종 행사, 모임에 참여	
	차별경험	동네에서	1. 전혀 차별 받지 않다 2. 별로 차별 받지 않다 3. 보통이다 4. 조금 차별 받다 5. 심한 차별 받다
상점, 음식점, 은행 등에서			
공공기관에서			
집주인/부동산중개업소에서			
직장/일터에서			
통제변수	연령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이상

구분	변수	문항	
	성별	남성	여성
	학력	받지 않았음(미취학포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석사과정 박사과정
	체류기간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체류자격	방문취업(H2) 전문인력(E1~E7) 유학 및 언어연수(D2,D4) 방문동반(F1~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자(F6) 기타

4. 요인분석 및 신뢰도

이어서 할 분석 과정을 실행하기 위해 본 연구의 변수들의 요인분석과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아래 <표 2>와 같이 요인값이 모두 0.6 이상이며 알파값이 모두 0.7 이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표 2>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1	2	3	4	5	6	7	Alpha
행복인식	0.899							0.915
	0.874							
	0.865							
	0.854							
	0.846							
차별경험		0.818						0.878
		0.812						
		0.800						
		0.740						
		0.737						
한국어능력			0.897					0.920
			0.889					
			0.879					
			0.850					

	1	2	3	4	5	6	7	Alpha
소속감				0.888				0.872
				0.864				
				0.844				
				0.767				
거주어려움					0.748			0.807
					0.723			
					0.713			
					0.707			
					0.673			
생활만족도						0.766		0.789
						0.729		
						0.698		
						0.696		
						0.682		
서울이미지							0.798	0.730
							0.758	
							0.740	

IV. 분석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조사대상 2500명 중 여성이 1440명(57.6%) 전체의 57.6%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은 30대(39.6%), 20대 이하(31.1%) 순으로 나타나며 총 70.7% 비중을 차지했다. 학력은 대학교(4년제 이상) 1010명(40.4%)으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19.6%), 대학(18.9%), 대학원 석사과정(12.2%)이다. 체류기간은 48개월 이상의 장기체류자가 39.5%이며 체류자격은 재외동포(24.1%), 유학(16.4%), 영주자(13.7%)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응답자 특성

변수	항목	빈도(명)	비율(%)	누적(%)
성별	남성	1060	42.4	42.4
	여성	1440	57.6	100
연령	20대 이하	778	31.1	31.1
	30대	990	39.6	70.7
	40대	448	17.9	88.6
	50대 이상	284	11.4	100
학력	초등학교	29	1.2	1.2
	중학교	96	3.8	5
	고등학교	491	19.6	24.6
	대학(2, 3년제)	472	18.9	43.5
	대학교(4년제 이상)	1010	40.4	83.9
	대학원 석사과정	305	12.2	96.1
	대학원 박사과정	97	3.9	100
체류기간	12개월 미만	482	19.3	19.3
	24개월 미만	444	17.8	37
	36개월 미만	328	13.1	50.2
	48개월 미만	258	10.3	60.5
	48개월 이상	988	39.5	100
체류자격	방문취업(H2)	275	11	11
	전문인력(E1~E7)	189	7.6	18.6
	유학(D2,D4)	409	16.4	34.9
	방문동거/거주/동반(F1~F3)	240	9.6	44.5
	재외동포(F4)	603	24.1	68.6
	영주자(F5)	343	13.7	82.4
	결혼이민자(F6)	237	9.5	91.8
	기타	204	8.2	100
총계		2500	100	100

2. 기술통계 결과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시 외국인 생활만족도는 평균 3.688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나며 표준편차는 0.655이다. 조절변수 한국어 능력은 3.309이며 외국인의 소통능력이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은 각각 평균은 3.013, 3.910, 6.928, 2.507, 2.768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이 서울시의 도시 이미지를 인정하는 동시에 거주어려움과 주관적 행복인식은 보통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지역사회 소속감과 차별경험은 보통수준

이하로 나타나며 외국인 생활만족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주어려움과 차별경험 문항 중 ‘해당사항 없음’ 또는 실질적 경험 수준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응답은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이후 각 구성개념은 유효 응답 문항의 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 이에 따라 차별경험 변수의 분석 사례 수는 다른 변수와 달리 2,046명으로 나타났다.

〈표 4〉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결과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생활만족도	2500	1	5	3.688	.655
한국어 능력	2500	1	5	3.309	.988
거주어려움	2500	1	5	3.013	.758
도시 이미지	2500	1	5	3.910	.703
주관적 행복인식	2500	1	10	6.928	1.648
지역사회 소속감	2500	1	5	2.507	.944
차별경험	2046	1	5	2.768	.924

3. 상관관계 분석결과

〈표 5〉를 보면 도시 이미지($r=0.384$), 주관적 행복인식($r=0.143$), 지역사회 소속감($r=0.096$)은 모두 서울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반면에, 거주 어려움($r=-0.196$)과 차별경험($r=-0.25$)은 생활만족도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조절변수인 한국어 능력($r=0.223$)은 외국인 생활만족도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생활만족도와 주요 변수 간의 기초적 관련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인과적 영향 관계는 이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표 5〉 상관관계 분석결과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생활만족도	2500	1	5	3.688	.655
한국어 능력	2500	1	5	3.309	.988
거주어려움	2500	1	5	3.013	.758
도시 이미지	2500	1	5	3.910	.703
주관적 행복인식	2500	1	10	6.928	1.648
지역사회 소속감	2500	1	5	2.507	.944
차별경험	2046	1	5	2.768	.924

4. 독립변수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있어 한국어 능력의 조절효과 결과

한국어 능력이 거주어려움, 도시 이미지, 주관적 행복인식, 지역사회 소속감, 차별경험과 서울시 거주 외국인의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절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아래(표 6)와 같다. 또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한 결과, 2를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다.

본 연구의 이론적 구조는 변수 간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틀이며, 실증분석에서는 각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병렬적 회귀모형을 활용하였다.

먼저, 모형1에서 통제변수만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인구사회적 요인에서 연령($\beta=3.66$, $p<.001$), 학력($\beta=7.89$, $p<.001$)은 외국인 생활만족도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시 거주 외국인은 연령,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는, 외국인의 인구학적 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3%로 나타났다. VIF값은 1.02~1.20의 값을 가짐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2는 모형1에 추가적으로 거주어려움, 도시 이미지, 주관적 행복인식, 지역사회 소속감, 차별경험과 조절변수인 한국어 능력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인구학적 요인에서 연령($\beta=2.50$, $p<.05$), 학력($\beta=4.26$, $p<.001$)과 체류기간($\beta=-3.46$, $p<.001$)은 외국인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 성별, 체류자격은 외국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에 도시 이미지($\beta=17.38$, $p<.001$), 주관적 행복인식($\beta=3.60$, $p<.001$), 지역사회 소속감($\beta=7.27$, $p<.001$)은 모두 서울시 거주 외국인의 생활만족도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거주어려움($\beta=-4.33$, $p<.001$), 차별경험($\beta=-6.89$, $p<.001$)은 외국인 생활만족도에 대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에 대한 도시 이미지가 좋을수록, 주관적 행복인식과 지역사회 소속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에 비해 거주어려움과 차별경험이 적을수록 외국인은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조절변수로서의 한국어능력($\beta=11.94$, $p<.001$)은 많은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며 본 연구에서도 외국인 생활만족도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의 인구사회적 요인, 거주어려움, 도시 이미지, 주관적 행복인식, 지역사회 소속감, 차별경험은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설명량은 26%로 나타났다. VIF값은 1.02~1.44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절효과 분석에서는 다중공선성 가능성을 완화하고 상호작용항의 해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인 한국어 능력을 평균중심화(mean-centering)한 후, 평균중심화된 변수들을 곱하여 상호작용항을 구성하였다.

모형3은 거주어려움, 도시 이미지, 주관적 행복인식, 지역사회 소속감, 차별경험, 인구사회적 요인과 조절변수 한국어 능력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인구사회적 요인에서 연령($\beta=2.32$, $p<.05$), 학력($\beta=4.27$, $p<.001$)은 외국인 생활만족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체류기간($\beta=-2.66$, $p<.01$)은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류기간이 길수록 생활만족도가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장기 체류 과정에서 주거, 행정서비스 이용, 체류자격, 차별경험 등 현실적 어려움이 누적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단기 체류자는 서울 생활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장기 체류자는 생활 과정에서 제도적 한계와 사회적 배제 경험을 더 구체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단, 성별과 체류자격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에서 거주어려움($\beta=-3.80$, $p<.001$), 도시 이미지($\beta=17.50$, $p<.001$), 주관적 행복인식($\beta=3.70$, $p<.001$), 소속감($\beta=7.32$, $p<.001$), 차별경험($\beta=-7.11$, $p<.001$), 한국어능력($\beta=12.40$, $p<.001$)은 모두 외국인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 거주어려움과 차별경험은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은 서울에 대한 국제, 관광, 미래 지향형 도시로 인정할수록, 주관적으로 자기의 건강, 재정,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판단할수록, 사회적으로 지역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 높기 때문에 외국인 생활만족도 향상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한국어 능력이 높고 주변 사회환경에서 차별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경험이 줄일수록 생활만족도 향상에 기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상호작용항에서는 거주어려움($\beta=3.30$, $p<.001$), 주관적 행복인식($\beta=-3.14$, $p<.01$), 지역사회 소속감($\beta=4.38$, $p<.001$)은 외국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한국어능력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 수준에 따라 거주어려움, 주관적 행복인식, 지역사회 소속감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한국어능력이 높을수록 거주어려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거주어려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완화됨을 의미한다. 한국어 능력이 높은 외국인은 주거, 의료, 교육, 민원, 체류자격 등 생활·행정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공공서비스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관적 행복인식과 한국어 능력의 상호작용항은 부(-)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어 능력이 낮은 집단에서 주관적 행복인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어 능력이 낮은 외국인은 생활정보나 행정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행복감이 생활만족도 평가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반면 한국어 능력이 높은 외국인은 언어 능력을 통해 다양한 외부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생활만족도가 주관적 행복인식 하나에 상대적으로 덜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결과는 추가적인 후속 진행연구를 통해 정밀하게 검증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 소속감과 한국어 능력의 상호작용항은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소속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한국어 능력이 높은 외국인은 지역 주민과의 의사소통, 지역 행사 참여, 생활정보 공유, 상호 도움 관계 형성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소속감은 단순한 심리적 감정이 아니라, 한국어 능력을 통해 실제 사회적 관계와 생활자원으로 전환될 때 생활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인의 인구사회적 요인, 거주어려움, 도시 이미지, 주관적 행복인식, 지역사회 소속감, 차별경험, 한국어능력, 상호작용항이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27%로 나타났다. VIF 값은 1.03~1.46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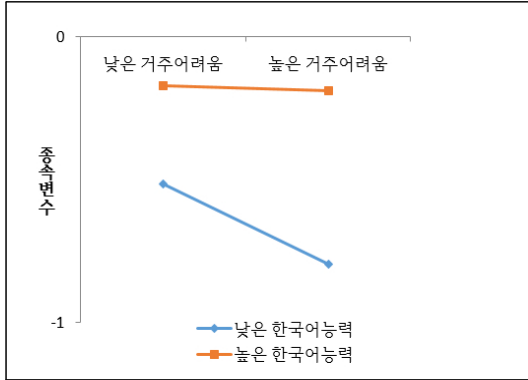
〈표 6〉 한국어 능력의 조절효과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β	t	β	t
성별	0.89	0.0359	0.40	0.0142	0.35	0.0125
연령	3.66	0.0818***	2.50	0.0495*	2.32	0.0457*
학력	7.89	0.133***	4.26	0.0673***	4.27	0.0677***
체류기간	1.26	0.0165	-3.46	-0.0435	-2.66	-0.0335**
체류자격	0.27	0.00262	0.63	0.00538	1.10	0.00941
거주어려움			-4.33	-0.0852***	-3.80	-0.0746***
도시이미지			17.38	0.318***	17.50	0.318***
행복인식			3.60	0.0642***	3.70	0.0659***
소속감			7.27	0.135***	7.32	0.135***
차별경험			-6.89	-0.143***	-7.11	-0.147***
한국어능력			11.94	0.225***	12.40	0.237***
한국어능력 _거주어려움					3.30	0.0586***
한국어능력 _서울이미지					0.24	0.00435
한국어능력 _행복인식					-3.14	-0.0572**
한국어능력 _소속감					4.38	0.0757***
한국어능력 _차별경험					-0.18	-0.00338
상수	-7.37	-1.023***	-2.91	-0.373**	-3.28	-0.419**
N	2500		2500		2500	
R2	0.0291		0.2568		0.2709	
adj. R2	0.0272		0.2535		0.2662	
F	14.96		78.15		57.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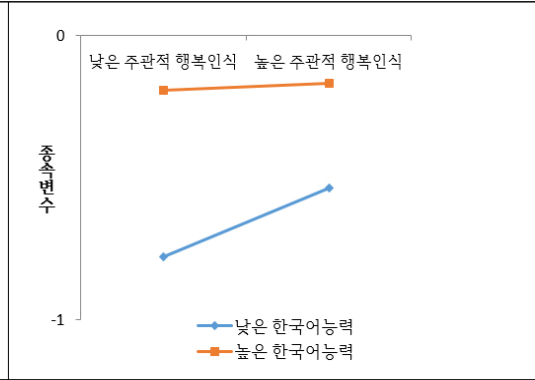
* p<0.05, ** p<0.01, *** p<0.001

해석의 편의를 위해 한국어능력은 거주어려움, 주관적 행복인식, 지역사회 소속감과 생활만족도에 대한 조절효과 그래프가 아래 〈그림 2〉, 〈그림 3〉, 〈그림 4〉와 같이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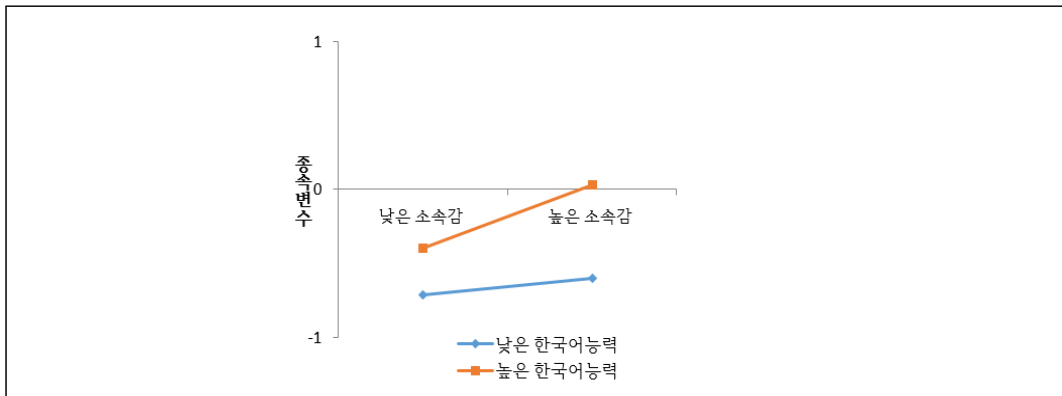
<그림2>



<그림3>



<그림 4>



<그림 2>를 살펴보면 한국어능력이 낮은 집단의 경우, 거주어려움 수준이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 반면, 한국어능력이 높은 집단은 거주어려움의 수준에 관계없이 생활만족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는 한국어능력이 거주어려움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buffering)하는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그림 3>을 보면 한국어능력이 낮은 집단은 주관적 행복인식이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했으나, 한국어능력이 높은 집단에서는 주관적 행복인식 수준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이는 한국어능력이 낮을수록 주관적 행복인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는 한국어능력이 높은 집단은 소속감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뚜렷하게 상승하는 반면에, 한국어능력이 낮은 집단은 소속감의 변화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변화 폭이 크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능력이 소속감의 긍정적 영향을 증폭(augmenting)시키는 조절변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어능력이 이주민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있어 중요한 보호요인 또는 촉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이주민의 생활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설계 시 한국어교육이 핵심 요소로 고려되어야 함을 함축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23년 서울서베이 외국인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 거주 외국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한국어 능력이 주요 영향요인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이미지, 주관적 행복인식, 지역사회 소속감은 모두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거주어려움과 차별경험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의 생활만족도가 단순한 경제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 평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보여준다.

특히 도시이미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이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이 서울을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국제성·개방성·미래가능성을 지닌 도시로 인식할 때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도시의 객관적 조건뿐 아니라 도시에 대한 상징적 인식이 생활만족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 소속감과 주관적 행복인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외국인의 생활만족도가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안정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축적될수록 생활만족도가 상승하는 경향은, 외국인의 사회통합이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준다.

셋째, 거주어려움과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제도적 제약과 사회적 배제가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저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외국인의 생활문제가 단순한 개인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한국어 능력은 모든 변수에서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어려움, 주관적 행복인식, 지역사회 소속감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만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존재한다고

확인되었다. 이는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조절효과 개념과 같이, 특정 변수 간 관계의 강도나 방향이 제3의 변수에 의해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어 능력은 거주어려움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소속감의 긍정적 영향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언어 능력이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사회적 자원 접근과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량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주관적 행복인식의 경우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언어 능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외부 자원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의 내적 인식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의 생활만족도가 내적 요인과 외적 자원 간의 균형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는 한국어 능력을 단순한 의사소통 능력이 아니라 외국인의 제도적 접근 역량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에 있다. 한국어 능력은 생활정보 획득, 행정서비스 이용, 지역사회 관계 형성의 가능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 거주어려움이나 지역사회 소속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외국인의 생활만족도를 개인적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환경, 사회적 관계, 개인적 인식이 연결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한국어 능력이 낮은 집단의 경우, 거주어려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 집단이 주거정보 접근이나 행정서비스 이용에 있어 구조적 제약을 더 크게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는 일반적인 주거지원 정책보다, 다국어 기반의 정보 제공, 행정절차 지원, 중개 서비스 강화와 같은 '접근성 중심 정책'이 우선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어 능력이 높은 집단에서는 지역사회 소속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이 이미 기본적인 제도 접근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며, 삶의 질이 사회적 관계의 질에 의해 좌우되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집단을 대상으로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보다, 지역사회 참여, 네트워크 형성, 공동체 기반 활동을 확대하는 '관계 강화형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어 능력이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이 생활정보, 행정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에 접근하는 제도적 접근 역량과 관련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책 설계에서는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한국어 능력 수준에 따른 다국어 행정정보 제공, 생활민원 지원, 지역사회 관계 형성 프로그램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셋째, 주관적 행복인식의 영향력이 한국어 능력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결과는, 외국인의 생활만족도가 내적 요인과 외적 자원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됨을 보여준다. 특히 언어 능력이 낮은 집단일수록 외부 자원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적 인식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넷째, 도시 이미지 개선은 외국인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도시정책 차원의 과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도시 이미지는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지만 한국어 능력에 의해 조절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외국인 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안전한 생활공간, 문화·여가 접근성, 공공서비스의 편리성, 외국인 대상 도시정보 제공 등을 통해 서울의 도시 매력과 생활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차별경험은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한국어 능력과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차별경험의 부정적 영향이 개인의 한국어 능력만으로 완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차별 예방 교육, 외국인 인권상담 창구, 차별경험 신고 및 지원체계, 공공기관의 다문화 감수성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동일한 서울서베이 자료를 활용한 기존 연구와 달리, 지역사회 결속이나 정책 공정성의 매개구조보다 외국인이 서울 생활에서 직접 경험하는 거주어려움, 차별경험, 도시 이미지, 지역사회 소속감, 주관적 행복인식의 상대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 거주 외국인의 생활만족도를 생활·제도적 어려움과 제도적 접근 역량의 관점에서 설명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참고문헌】

- 김선숙 외.(2020),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이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계층의식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과학연구*, 31(3), 59-78.
- 김안나·최승아.(2017) 외국인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 학력 미스매치, 차별 경험, 임파워먼트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8(2), 331-357.
- 김은미; 정현주.(2017). 공공기관 경험이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정관리연구*, 205-234.
- 김한성·이유신. (2013).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지역사회 특성과 차별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7(2), 177-209.
- 김홍렬·장윤정.(2013). 도시관광의 관광매력성과 도시이미지 관계 연구: 서울 외래방문객을 대상으로: 서울 외래방문객을 대상으로. *관광연구저널*, 27(3), 173-188.
- 민숙원 외.(2020) 대학원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의 진로선택 탐색과 인적자원 활용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박윤경·이소연.(2009)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집단 간 차이와 집단 내 다양성. *시민교육연구*, 41(1), 41-71.
- 신원식·정연주.(2010).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생활 적응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인식. *사회과학연구*, 36(3), 213-232.
- 윤진희·권오규·마강래.(2014). 서울시 중국국적외국인의 주거지 분포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계 중국인과 비한국계 중국인 비교: 한국계 중국인과 비한국계 중국인 비교.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6(2), 39-54.
- 이강욱.(2024). 중국인 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감과 두려움이 대학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어능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학회지*, 5(3), 93-111.
- 전성윤·전희정.(2024).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역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동네·도시·국가소속감 비교를 중심으로. *지역연구*, 40(4), 57-74.
- 조윤주·최연실.(2013). 다문화가족 외국인 남성의 가족상담에 대한 필요성 인식 관련 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 한국어 능력,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상담 경험 유무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1), 441-459.
- 김해연·신리나·황하성.(2019). 중국인 유학생의 차별경험이 유학생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귀인성향, 내외통제성의 조절효과: 귀인성향, 내외통제성의 조절효과. *사회과학연구*, 26(1), 81-96.
- 나종연.(2008). 국내거주외국인의 생활만족도와 소비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 지.46(10).
- 이정환.(2016)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생활 만족도. *한국인구학*, 39(2), 25-48.
- 임동진.(2021) 이민자 유형별 정착서비스 수요 및 생활만족도 분석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와 유학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5(4), 275-311.
- 조혁수·전경태.(2009)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사회과학연구*, 20(3), 193-223.
- 한규은. (2025). 서울 거주 외국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결속과 정책 공정성의 영향: 한국어 능력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44(2), 223-254.
-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s of life quality*. New York, NY: Plenum Press.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ck, W., van der Maesen, L. J. G., & Walker, A. (Eds.). (1997). *The Social Quality of Europe*. The Hague/London/Boston: Kluwer Law International.
- Berry, J. W.,(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 Berry, J. W.(2006). "Stress perspectives on acculturation. In D. L. Sam & J. W. Berry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Acculturation Psychology*, 43-57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New York, NY: Russell Sage Foundation.
- Cox, W.(2014). "Residential mobility, homeownership, and housing satisfaction," *Cityscape*, 16(1), 123-136.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302.
- Evans, G. W., Wells, N. M., & Moch, A.(2003) "Housing and mental health: A review of the evidence and a methodological and conceptual critique," *Journal of Social Issues*, 59(3), 475-500.
- Lindenberg, S. (1996). *Continuities in the theory 10 of social production functions*. *Verklarende sociologie: Opstellen voor Reinhard Wippler*, Thesis Publishers, Amsterdam, 169-184.
- Lynch, K. (1960). *The image of the city*. Cambridge, MA: MIT Press.

- Neugarten, B. L., Havighurst, R. J., & Tobin, S.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2), 134-143.
- Newman, S. J., & Holupka, C. S. (2015). "Housing affordability and child well-being," *Housing Policy Debate*, 25(1), 116-151.
- OECD. (2015). *How's life? 2015: Measuring well-being*. Paris: OECD Publishing.
- Phinney, J. S., Horenczyk, G., Liebkind, K., & Vedder, P. (1998). Ethnic identity, immigration, and well-being: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Issues*, 54(3), 493-510.
- Phinney, J. S., Madden, T., & Santos, L. J. (1998). "Psychological variables as predictors of perceived ethnic discrimination among minority and immigrant adolescen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8(11), 937-953.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NY: Simon & Schuster.
- Schmitt, M. T., Branscombe, N. R., Postmes, T., & Garcia, A. (2014). The consequence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for psychological well-being: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40(4), 921-948.
- Ward, C., Bochner, S., & Furnham, A. (2001). *The psychology of culture shock* (2nd ed.). London: Routledge.
- Williams, D. R., Yu, Y., Jackson, J. S., & Anderson, N. B. (1997). Racial differences in physical and mental health: Socio-economic status, stress, and discriminatio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3), 335-351.

범 존 하: 현재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Structural Failures in Industrial Risk Perception among Foreign Migrant Workers"가 있으며, 외국인 이주민의 위험인식과 사회적 취약성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외국인, 이민, 사회복지, 거버넌스 등이다(fanzunxia@naver.com).